

합동전화

로카디파파, 2016년 9월 17일

“일치된 세계를 위한 작은 발걸음”

**1. 시작인사**

**2. 카이로에 뜬 무지개 (이집트)**

AMU, 이집트 “코스 카자 (Koz Kazah)” 회와의 협력하에 그리스도교와 무슬림 젊은 여성들과 성인 여성들을 위한 교육, 직업 훈련 과정 발기.

**3. 팅코 카마요, 방적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

카타마라의 산타 마리아에서 팅코 카마요 협동조합 활동이 기반을 잡다. 칼자키 족 후손 여성들의 십 수년에 걸친 작업 경험.

**4. 색다른 신혼여행**

한달 반 동안 요르단의 카리타스회에 자원 봉사 하며 암만에서 신혼여행 기간을 보낸 신혼부부.

**5. 아옌 선생 (알바니아)**

알바니아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 남아 조국의 미래에 기여하기로 결심한 한 교사.

**6. 평화를 위한 참여**

Host Spot 프로젝트: 난민 가정들을 가까이에서 알기 위해 요르단에서 함께 지낸 유럽과 중동의 55 명의 젊은이들.

**7. 브루노 벤투리니**

끼아라 루빅의 첫 동료들 중 한 명으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노년기의 경험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

**8. 다양한 모습의 한 스토리 (이태리)**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사랑”, 로마 레비비아 감옥의 안과 밖에 희망을 되찾아 주는 알폰소와 여러 사람의 비결.

**9.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와 예수스 모란과의 대화**

**10. 끼아라 루빅: 버림받은 예수님과 일치된 세계**

끼아라 루빅, 1987년 5월 16일 이태리 로피아노 소도시의 젊은이들의 질문에 답.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현 시대의 여러 ‘모습’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현존하시는지 보여주며, 좀 더 일치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그 분을 알아보고 사랑하도록 요청.

**11. 결론**

1) 시작 인사

(박수)

라이언(Ryan): (saluto in inglese) 모두 반갑습니다. 합동 전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리아(마리아): (saluto in ceco) 여러분과 이 곳에 함께하고 또 전 세계와 연결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라이언(Ryan): 저는 라이언이고 미국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우리 도시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예를 들면 농구, 대형 피자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풍경입니다.

저는 막 마케팅 전공을 끝내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원봉사 기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세계 전본부에서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마리아): 저는 마리아입니다. 유럽 중심부에 있는 작은 나라 체코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황금 도시’라고 불리는 수도 프라하와 맥주 생산으로 인해 알려졌는데, 그 것뿐만은 아닙니다!

작년에 건축학과를 졸업했는데,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왔고, 3 일 후에 다시 떠나는데, 이 경험을 한 것에 대해 정말 기쁩니다.

라이언(Ryan): 오늘 우리가 전세계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계가 여기 이 강당에 우리와 함께 있기도 합니다.

마리아(마리아): 방금 모임을 마친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지역 대표들에게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가 이 합동전화에서 보게 될 내용의 몇몇 주인공 들 중에서 “전쟁 반대” 단체의 젊은이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라이언(Ryan): 지금은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가장 고립된 지역들 중의 하나인 오스트렐리아 퍼스 지역의 “다운 언들 (down under)”로 가 보겠습니다.

차오 클라리사 들리세요?

클라리사(Clarissa): 차오 라이언, 반갑습니다.

라이언(Ryan): 저희도 반갑습니다!

클라리사(Clarissa): “다운 언들 (down under)”에서 인사 드립니다. 여기에는 아직 겨울철인 하루를 보내고 작은 그룹이 포콜라레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녁 6 시인데, 더 동쪽 섬들은 이미 10 시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곳에서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온 가족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길 하고 싶었습니다.

멜키트 교회와 우리 도시의 여러 본당과 중국 공동체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콜라레는 여러 도움의 “환승장” 처럼 되었습니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분배하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섭리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주고 오는 사랑!’에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이언(Ryan): 클라리사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13.000 km 나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클라리사(Clarissa): 네, 차오!”

라이언(Ryan): 차오!

마리아: 차오, 정말 고맙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봉과도 전화 연결을 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그 국가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연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오전에 몇 시간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합동 전화를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차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라이언(Ryan): 이 강당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을 아는데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니면서 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차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언입니다. 성함이?

마케: 저는 마케이고 오세아니아의 푸투나 섬에서 왔습니다.

라이언(Ryan): 전 세계에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마케: 모두에게 인사 드립니다! (saluto in futunese)

라이언(Ryan):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또 누가 있는지 봅시다...

차오 반갑습니다! 일어서 주시겠어요? 성함은 어디서 오셨는지요?

로베르타 (Roberta): 저는 로베르타이고 베네수엘라에서 왔습니다.

라이언(Ryan): 좋습니다. 인사 하시겠습니까?

로베르타 (Roberta):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두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인사 드리고, 우리를 돕고 또 지탱해 주는 여기 있는 모두에게도 인사 드립니다.

라이언(Ryan): 고맙습니다!

마리아: 여러분 나라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로베르타 (Roberta): 네, 실질적으로 예전에 없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최악의 폭력사태로 우리도 아주 가까이에서 겪었는데,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우리 운동의 두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마리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강한 경험입니다.

## 2) 카이로에 뜬, 무지개 (이집트)

마리아: 첫 소식은 우리를 이집트의 카이로로 데려갑니다. 주인공들은 일치된 세계를 위한 활동인 AMU와 “코스 카자 (Koz Kazah)”회에서 지원하는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슈브라 마을의 여성들입니다. (음악)

**자막: 2016년 3월 카이로**

스피커(음성): 현재 이집트에는 과거의 풍요와 현재의 많은 도전들이 공존한다. (음악)

세계의 다른 도시들처럼 사회계층들 사이의 경제적 차이는 소외계층을 낳았다. 아무(AMU)의 협력자들과 함께 한 여행에서 나는,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들에게 자주 묻곤 했었는데, 그들은 해답으로 아랍어로 “무지개”를 뜻하는 “코스 카자 (Koz Kazah)” 경험을 언급했다. (음악)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6 백만이 거주하고 웃을 이유가 거의 없는 카이로의 슈브라(Shubra) 구역에서 그들은 ‘무지개’를 보았다. (음악)

우리는 셰나(Shoinaa)와 그의 딸의 환영을 받았다. 셰나는 여러 해 동안 ‘코스 카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의 스토리는 그 곳의 다른 여러 부인들의 경험과 비슷하다. 배신, 이혼 그리고 가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서 그런 흔적들은 찾아볼 수 없다. ‘코스 카자’ 활동에서 셰나는 다른 수백 명의 부인들과 함께 그들의 능력을 재발견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았다. (음악)

Awatef Klada, Koz Kazah Foundation 지도자 (donna in arabo): 초기에 그들에게는 단지 집안일과 자녀를 돌보는 것 밖에 없었으므로 디자인용 붓조차 들지 않았지만,(간격) 우리가 술선수범하며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네디 부인 (donna in arabo): 저의 딸이 그 그룹에 다녀서 공부 시간을 잃지 않을지 걱정되고, 도대체 어떤 그룹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과 함께 가기 시작하면서 ‘와다프’와 ‘이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도 함께 와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모두 자매 같아져서, 모든 행사와 축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in italiano): 이 부인들은 수공예 작업뿐만 아니라 건강, 위생, 일반적인 문화에 관한 개념도 배운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가정관리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 신앙에 관해 대화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Awatef Klada, Koz Kazah Foundation 지도자 (donna in arabo): (...) 오늘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자면, 한 그리스도교 부인이 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가운데로 가서, 그 동안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임신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 그랬더니 한 이슬람교 부인이 “혹시 피곤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제게 얘기하세요. 그럼 도와드리러 올게요.”라고 했습니다.

스피커 (in italiano): 많은 부인들이 자녀들을 통해 ‘코스 카자’에 오게 됐다.

Alaa 의 어머니와 다른 참석자들 (donna in arabo): 우리는 무슬림 이지만 많은 그리스도교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교 친구들이 있으며, 우리는 진정한 자매들이며, 차별하지 않습니다.

스피커 (in italiano): ‘코스 카자’ 활동은 상호적 나눔을 통해 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예를 들어 ‘코스 카자’의 지원을 받은 부인들이 매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는 카리타스회 수녀님들을 돕는다.

Awatef Klada, Koz Kazah Foundation 지도자 (donna in arabo): 우리 활동에 참여하는 부인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이 매우 적다 하더라도, 그들 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내어 주는 것은 단지 돈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력을 줄 수 있고 이웃을 도와 줄 수도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

이 곳에는 그리스도교인 뿐만 아니라, 수녀님들이 길에서 발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 활동은 이 부인들에게 ‘주는 것’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이 지역 문화에는 단지 돈으로 교환하는 의미의 ‘주는 개념’ 만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커 (in italiano): 이 활동을 ‘슈브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할 기회가 생겼다. 카이로의 파갈라 지역의 한 건물에서도 이미 작업이 시작되었다. (음악)

### 3) 팅코 카마요, 방적하는 여성들 (아르헨티나)

마리아: 카이로의 영성들에게서 이제는 아르헨티나 북부의 안데스 산자락에 있는 칼자키 문화 구역의원주민 여성 한 그룹을 만나러 갑시다. 이는 40년 이상의 작업과 희망이 점철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음악)

**자막: 카타마르카의 성모님-아르헨티나**

(음악)

“함께 일하기 위해”, 원주민 후손 여성들을 위한 협동조합

Margarita Ramirez, Tinku Kamayu 조합장 (in spagnolo): 저는 말가리타이고, 푸에블라 칼자키외 족의 후손입니다. 저희 증조부의 아버지는 ‘칼자키외’ 족의 족장이셨습니다. 2001 년의 위기 때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도 없었고, 나라가 큰 가난에 처했습니다. 나는 다양한 가난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고,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남성우월주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사고방식으로는, 여성들은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 것은 불평등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의 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방직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María Condori, Tinky Kamayu (in spagnolo): ‘팅코 카마’요는 케추아어로 ‘일하기 위해 함께 모이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한 여자로 존중 받음을 느꼈습니다. 말가리타는 우리에게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 더하다거나 덜하다고 느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기업주입니다!”

María Ramírez, Tinku Kamayu (in spagnolo): 첫날 저는 울면서 왔고, 저녁에도 울면서 돌아갔는데, 방직도, 아무 것도 할 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았고 또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은, 저 자신이 큰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Nome? (in spagnolo): 저 자신이 환영 받고, 여성으로써, 엄마와 부인으로써 실현된 것을 느낍니다.

Margarita Ramirez, Tinku Kamayu 조합장 (in spagnolo): 이제 텅코는 14 명의 직공이 일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한 모래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의 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식물과 방직 문화를 재생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되돌려줍니다

Nome? (in spagnolo): 우리는 100% 자연산 재료로 옷을 만듭니다. 양이나 라마 털을 팔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상인들에게서 직구입합니다.

Nome? (in spagnolo): 완전히 자연적인 공법으로 일하고, 염색용으로는 호두, 양파, 약재 식물인 하리아 껍질을 사용합니다.

Margarita Ramirez, Tinku Kamayu 조합장 (in spagnolo): 이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실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ría Condori, Tinky Kamayu (in spagnolo): 제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팅코’는 제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제게 살고 싶은 원의를 되돌려 주었고, 제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도 저를 존중하게 함으로써, 한 여성으로 존중 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저에게서 앗아 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음악)

#### 4) 색다른 신혼여행

라이언(Ryan): 지금 보게 될 스토리의 제목은 “색다른 신혼여행”으로 제목자체가 다 말해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악)

Cristian (in inglese): 우리는 작년에 인도의 ‘일치된 세계 주간’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순간 그 녀를 보면서 “이 사람이다!”하고 말했습니다.

Elaine (in inglese): 크리스찬은 루마니아 사람이고 저는 항상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도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이점을 느끼지만 일치 또한 발견하는 것은 매력적인 것이고 그 것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음악)

Elaine: 우리는 결혼했고 신혼여행이 있었지요.

Cristian 우리는 5 월 1 일 로피아노의 젊은이 행사에서 요르단의 카리타스회 회장인 와엘의 비디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da video di Wael Suleiman – 로피아노, 이태리 인치자 발다르노, 2016년 5월 1일 (in italiano): 중동으로 와 주세요, 중동 사람들을 도와주러 와주세요...

Cristian: 그는. “상황이 어떤지 보러 오세요”라고 했고, 우리는...

Elaine: 갑시다

Cristian: 초청받았으니, 갑시다! (음악)

Cristian: 우리는 티비에서 난민촌을 보았기 때문에 천막에서 묵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난민들은 도심에 피신해 있었고, 카리타스에서 그들의 필수품들을 마련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정쩡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거기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음악)

우리는 6 시에서 6 시 15 분경에 일어나서, 6 시 50 분에 길을 떠나 아르파(Zarquá)에 도착했습니다.

Elaine: 7 시 30 분에 아르파에 도착했습니다.

Cristian : 우리가 주로 한 일은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Elaine: 교육적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들기, 상호적인 놀이를 했습니다.

Cristian : 엘라인은 난민 여성들을 위한 요가 교실을 열었습니다.

Elaine: 저는 그들이 스트레스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온다는 것을 감안하며, 요가 강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배워서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호흡법과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음악)

Cristian : 그런데 우리 신혼여행도 있었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Elaine: 우리의 관계를!

Cristian : 우리의 관계를! (박수)

마리아: 오늘은 크리스찬의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 5) 아옌 선생님 (알바니아)

마리아: 이제,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한, 선생님을 만나보러 알바니아로 가 봅시다. (주변 모습)

스피커: 스킨베리(Shqipëri)! “독수리의 땅”은 알바니아의 옛 이름이다.

발칸 반도에 위치하며 아드리아해에 접해 있는, 마더 테레사 부모님의 땅이다. 지난 세기 40년 이상을 독재정권하에서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으며 지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대대적인 이민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인구는 3억 정도이며, 약 1억 5천명 정도의 알바니아인들이 전 세계에 이민을 가 있다. (음악)

Dajana Olaj, 여학생 a Bogë (in albanese): 여기는 수도, 티라나이고, 우리는 이 곳 산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Pjeter Ulaj, 노인 (in albanese): 1928년에 우리 마을에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나도 4년간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Anila Pekmezi, Xhaj, Bogë 교장 (in albanese): 알바니아에는 아직도 여러 지역들이 우리 산간 지역처럼 적절하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교사들의 일상적인 일은 이런 지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ARDJAN ULAJ, Bogë 교사 (in albanese): 저는 결혼했고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둘은 딸이고 하나는 아들입니다.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요? 도시에 비해 가능성이 적은 알바니아 북부지역 마을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 선택을 했냐고요? '97-8 년도로, 저의 조국 알바니아가 혼돈 속에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동갑내기들과 동료들은 알바니아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남아서 조국에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냐고요? 물론 그랬습니다. 많은 제 동기들이 지금 밀라노, 런던 등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제가 저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지요.

Robert Ghogaj, Bogë 남 학생 (in albanese): 저는 12 살인데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정말 좋아요.

Klevisa R. Rakaj, Bogë 여 학생 (in albanese): 저는 기쁘게 학교에 가요. 아옌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세요!

ARDJAN ULAJ, Bogë 교사 (in albanese): 저는 이 작은 학교에서 약 40 명의 학생들에게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과학을 가르칩니다. 힘은 들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꿈이요? 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곳에 관광 사업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 무언가 좋은 일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애물들과 더불어 어려운 시기를 지냈지만 행복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좋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악) (박수)

라이언(Ryan): 아옌의 경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 6) 평화를 위한 참여

라이언(Ryan): 8 월에 저는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요르단에 갔었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티비에서 사건들과 숫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와 같은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닙니다.

살람, 이라크 (in Arabic): 우리는 8 개의 방이 딸린 커다란 집에서 자녀들은 각자 침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 미터 평방의 천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삶입니까?

사멧, 이라크 (in Arabic): 우리는 한 회사를 운영하며, 자립하고 살았는데 IS 가 침공하면서 걸치고 있던 옷 외에는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피신해야 했습니다.

**스피커:** 살람과 사멧의 스토리는 지난 8월 요르단의 마바다에 갔던 젊은이 그룹의 마음과 생각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많은 스토리들 중 하나이다.

젊은이들 중 여러 명은 처음으로 그 곳에서 서로 만났는데, 유럽, 중동 그리고 미국, 아르헨티나, 뉴질랜드로부터 왔다. 그들은 6 개월 전까지 114 명의 이라크 난민들을 수용했던 캠프에서 12 일간을 지냈다.

**에인, 아일랜드 (in English):** 우리가 난민들이 묵었던 곳에서 머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 이 곳에는 이집트의 하갈과, 독일의 리나, 제가 묵어요. (...) 제 침대 옆 벽에는 곡물 상자에서 오려 낸 작은 그림이 붙어있어요.

**안나, 이태리 (in Italian):** 자주 “아 젊은이들은 아무 것도 안 해!” 라고 하고, 조금은 과소평가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어요. 저는 이 곳 요르단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고 여러 국적의 젊은이들과 함께 왔기 때문이에요.

**스피커:** 중동과 유럽의 젊은이들 한 그룹이 함께 한다고, 이렇게 비극적이고 복잡한 상황 앞에서 무엇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첼렌, 독일 (in English):** 저는 중동 사람들이 서양의 한 젊은이가 도움을 주러 오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 반면에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 서로 거리를 두고 냉랭하게 지내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결국에는 그 것이 기우였음을 보았습니다.

**파스케일, 레바논(in English):** 우리 나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 제 생각에 문화적 교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마하마드, 팔레스타인 (in Arabic):** 우리 사이에는 이해심과 조화가 있습니다. 마치도 “그래야 했던 것”처럼, 각자가 서로를 완성시켜주고 함께 일하는 것은 좋고 즐겁습니다.

**스피커:** Host-spot 은 9 개국의 10 개 비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유럽위원회에서 자금을 대는 프로젝트이다.

요르단의 까리타스회가 이를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된 사멧과 살람은 거기 참가한 55 명의 젊은이들을 위한 요리사로 일했다.

**디나, 요르단 (in English):** 전쟁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이 곳에 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알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기회였고,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어요.

**스피커:** 다른 나라에 이민 가기 위해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가정들을 방문하는 것은 강한 경험이었다. 그 때까지는 티비 뉴스의 숫자에 불과하던 사람들이 차츰차츰 하나의 이름과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되었다.

마리솔, 스페인 (in Spanish):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베일로 전신을 감싸고 단지 눈만 보였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꿈이 무엇인지 등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그림도 그렸어요. 마치도 장벽을 부수는 것 같이 조금씩 서로 더 친해지면서 아이들의 엄마가 편안해져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 녀의 고통을 함께 느꼈고, 그 녀는 어느 순간 베일을 벗고 제게 키스해 주었어요. 마치도 저 멀리 느껴지던 누군가가 거의 저의 엄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먼 얘기들이 아니에요. (음악)

**스피커:** 곳곳에 할 일이 많지만, 아이디어들이 연대감과 이해의 행위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

많은 때, 난민 문제의 피해자는 어린이들이다. 매일 오후 2 개의 학교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수아룩, 요르단 (in English): 오늘 우리는 한 어린이 집에 와 있어요. (...)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그들의 마음 속에 행복이 피어나게 하기 위해 왔어요.

**스피커:** 대중매체들은 자주 중동의 분쟁들과 전반적인 난민 문제의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가정들의 거르지 않은 스토리와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을 나누고자 한다. (말 소리)

그래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상에 하나의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음성)

막시밀리아노, 이태리 (in Italian): 이 여행의 목적은 더 잘 이해하고 더 가까워져야 할 이 경험을, 이 현실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토프, 헝가리 (in English): 제 사진의 대부분은 행복한 순간들과 개인적인 것들로, 우리처럼 아이들과 노는 모습들을 유럽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하나의 삶으로써, 희망으로 가득 찬 이 가정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와엘 비. 솔리만 (Wael V. Suleiman), 요르단 카리타스회 회장 (in Arabic): 우리는 전쟁, 파괴, 죽음, 미움, 폭력, 분쟁과 분열을 보는 눈을 가졌지만, 미래를, 즉 가난, 배고픔, 미움이 없는 단 하나의 가정을 보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의 찬란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언제 실현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 것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박수)

라이언(Ryan): 요르단 경험 후 내 기억에 남은 한 구절은, 많은 고통을 겪은 한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항상 희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희망을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7) 브루노 벤투리니

마리아: 지금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알았던 한 사람인 브루노 벤투리니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30 년간 끼아라 루빅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브루노는 지난 8 월 2 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옆에 프란츠 코리아스코 기자께서 계신데 많은 이들이 그랬듯이 청소년 시절부터 브루노를 알았던 분입니다. 차오 프란츠!

프란츠 코리아스코(Franz Coriasco): 차오, 차오!

마리아(Maria): 개인 블로그에 브루노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쓰셨는데 수 천명이 공유했지요!

프란츠 코리아스코(Franz Coriasco): 브루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는 것은, 마치도 정어리 통조림 한 통을 보여 주면서 바다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구나 브루노 자체가 워낙 말을 적게 하는 편이었지요…….

그를 접할 행운을 가졌던 저의 세대 모두에게 브루노는 한 아버지이며, 친구였고, 맏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를 찾아가곤 했는데, 브루노가 해결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단지 함께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브루노는 단지 함께 하는 것에서 삶과 그 그늘이 의미를 찾았고, 어떤 때는 작은 빛도 보여 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노는 고전적인 의미로 문제를 해결 해 주는 “문제 해결사”나 “고해 신부”는 아니었지만, 시야가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가는 상대였습니다.

실제로 늘 빛진 마음을 지니고,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그에게서 떠났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감사와, 겸손과, 자신을 내어 주는 면에서 올림픽 메달 감인 브루노가 먼저 감사해 했습니다.

나는 단지 마지막 날들 에서야 그 선물들이 선천적 기질이 아니라, 힘겹게 그리고 결코 그 값을 따지지 않고, 존재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라질 줄 알고, 계속 자신을 걸어 넘으로써 획득한 단순성으로 얻어낸 결실임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마리아적이고, 끼아라가 말한 “사랑의 예술”을 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루노는 우리 중 많은 이에게 따라잡기 어려운 스승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겸손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 줄 이 짧은 비디오는 우리가 함께 했던 어느 식사 시간에 녹음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표현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 (비디오)

프란츠 코리아스코(Franz Coriasco): (in italiano): (...) 언젠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물었을 때, 나 자신은 사라지기 바란다! 고 하셨지요. 이 말을 재확인하나요? 좀 더 잘 설명해 주겠습니까?

브루노 벤투리니 (in italiano): 네, 그건 내가 이 순간 느끼는 것의 결과이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느끼면 사라지는 것이 낫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자기과시(自己誇示)입니다. (...)

내가 해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라지는 것은 나중에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해당됩니다. 이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기도 하니, 끼아라와 함께 했던 긴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지요!

(...)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쁘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뻐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여름에 했던 경험은, 어느 순간 한 외적인 상황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인 붕괴를 느끼면서, 어느 순간 스스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도 90년 세월이 한꺼번에 덮쳐 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니? 그러니 계속 앞으로 나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등등 ... 좋아요! 삶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께서 늘 내게 청하셨고 어느 모로 내가 늘 그분께 드렸던 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날들은 꿈쩍달싹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60년 전에 그 분께 약속 드린 그 “네”를, 드디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

뭐 그리 대단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온전히 응하면!” 됩니다. 우리의 몫을 하고, 순간 순간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 우리가 없어지면 없어질 수록 더 존재하게 됩니다.

라이언(Ryan): 브루노 당신의 표양에 감사드립니다!

## 8) 여러 모습의 한 스토리 (이태리)

라이언(Ryan): 지금은, 사랑이 누군가를 통해서, 감옥과 그 이후의 장벽을 극복하게 해 주고,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에 대한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로살바 초카(Rosalba Ciocca), 파트리치오 어머니: 알폰소는 정말 큰 몫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제 아들을 지탱해주었습니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된 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알폰소가 아니었다면...! 우리 주변의 천사입니다!

파트리치오 초카(Patrizio Ciocca), 피자집 도우미: 알폰소가 한번은 레비비아의 수감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가족 같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저의 아버지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이란 게 어느 때는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은 쳐지고 또 다시 관찰아지고, 려지요. ...

우리 관계는 처음에는 나와 그의 관계였지만, 나중에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도 알폰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숫자가 많아졌고, 그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알폰소 디 니콜라(Alfonso Di Nicola), “늘 사람을” 프로젝트(Progetto Sempre Persona) 창시자: 약 20 년 전에 한 친구가 3 명의 수감자 주소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 3 명에게 편지를 썼는데 죠르쵸 한 명만 답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지 물었는데, 내게 답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기쁠 것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한가지 청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서 나 대신 키스를 해 주세요”.

부인은 울기 시작했고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병이 심해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 아들을 맡겨드려요”

죤르쵸를 다시 만났는데, 정말 기뻐했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 친구가 있는데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하니 1 분만 내어 주시면 안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돕고 싶어해서, 지금은 30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 여러 명은 옛 수감자들입니다. 우리가 돌보는 가정들도 200 이 넘습니다.

안나 델 빌라노 (Anna Del Villano), (로마) 레비아 수감소의 부 소장: “늘 사람을”협회와 함께 우리 운영자들은 알폰소님께 수감자들의 가정들 중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공조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출감 후 지속적으로 돌보는 면은 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내부에서 일합니다. 출감 후 생활하는 지역에서도 돌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답이 됩니다.

알렉산드라 도라지오(Alessandra D’Orazio): 9년간 알폰소를 알고 지내는데 제게 이것은 중요합니다. 매일 그에게 “알폰소 잘 지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제게는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는데 (눈물)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알폰소 디 니콜라: 만일 내가 하루 중 잠시 멈추고 하느님으로부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청하지 않는다면, 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프랑코 리페라(Franco Lippera): 나는 손에 무기를 들고 약탈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그런데 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확신하는데, 누군가가 제게 14 발을 발사했는데 단지 2 발만, 한 발은 발에, 한 발은 옆구리만 맞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표현하시고, 제 스스로 깨닫게 하시지요.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상관없습니다. 참된 친구인 알폰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면 기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 덕분에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 안의 하느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요!

말시모 말리니 (Massimo Mallini), 르노 회계사, “늘 사람을” 프로젝트 도우미: 이 곳에는 출소하여 밝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된 기쁨 등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희망, 성공, 실패 등을 통해 결국은 하나의 위대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됩니다.

마르코 베랄디 (Marco Beraldi), 오토바이 기술자: 이미 여기 안에 고정된 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밖에서도 그렇기를 바라는데, 즉 늘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한 참된 우정이 있다는 생각은, 이 감옥에서 나가더라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이 내게 해 준 것을 다른 이들에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로베르코 케르니에리 신부(D. Roberto Guernieri), 레비비아 담당 신부: 이 곳에서 우리가 목격 하는 가장 큰 패배는 무력감입니다. 우리가 이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런 스토리들 한 가운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희망의 불을 밝히게 해 줍니다.

로베르토 미르코 (Roberto Mirco), 요리사: 나는 내 삶이 끝났다고, 도중에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 판단들은 서서히 죽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폰소는 나에게 희망을 되돌려 주고, 힘을 주었으며,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의미는 다른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과거에 잘못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했고, 고통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출옥 후에 문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내게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하느님과 알폰소 덕에 나는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포옹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이것은 나를 이끌어 주는 하느님 자비의 힘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사랑 받았음을 느낍니다!

알폰소 디 니콜라: 내가 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나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충만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사랑.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가까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몇몇 가시들을 뽑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버림받은 예수님들의 가시를 뽑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라이언(Ryan): 이 스토리는 우리를 깊이 감동시킵니다, 고맙습니다!

## 9)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와 예수스 모란과의 대화

라이언(Ryan): 이제 엠마우스 와 예수스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세계 운동 대표들과의 모임을 방금 끝냈다고 알고있는데, 어땠나요?

엠마우스: 아주 좋았습니다. 그 중 많은 대표들이 지금 이 강당에 있습니다. 나는 합동전화에서 이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들은 전 세계의 구체화된 삶의 일부입니다. 이 번에는 단지 1/3 만 모였는데,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만 왔고, 다음 주에는 다른 두 그룹이 오게 될 것인데, 이 대표들이 이 삶, 이 삶의 스토리, 부활의 스토리, 변화의 스토리,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스토리, 자신들의 존엄성을 재 발견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재발견하여 자신들의 주변을, 사회를 바꾸기 시작한 사람들의 삶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것은 정말 큰 것, 거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의 뿌리, 유일한 뿌리가 이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인데, 이는 십자가에 못박히고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임 중에 이를 재발견했습니다.



끼아라가 했던 그 발견을 다시 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보내시기까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죽게 할 정도까지, 예외적인 방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죽는데, 그 분 또한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나는 모든 고통까지 겪게 하셨습니다. 배반당하고, 실패하고, 굴욕 당하고, 벌거 벗겨지고, 가난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끼아라가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느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그 부르짖음에서 표현하신 그 고통 즉 하느님께서 멀리 느껴지기에 이르기까지 한, 그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동기들이, 자신들이 겪는 모든 고통들 안에서 하느님을 멀리 느끼는가요?

우리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이 고통 안에 계세요. 그 분께서도 이 것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은 여기에 계세요” 우리는 이 고통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며, 이 버림받은 하느님을,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인간이 되어 그 분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닙니다.

끼아라는 버림받은 예수님을, “하나의 창”이라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인간에게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분은 인간이며, 고통의 인간, 난민인 인간, 세상에서 보는 모든 모습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이 인간을 버림받은 예수님 안에서 보십니다.

동시에 그 분은 하느님이시니, 하느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분을 통해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보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 강당에 있는 단지 80명 정도의 사람들만 이것을 가져가는 것, 자신들의 지역으로 이 사랑을 지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이 사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끼아라를 따른 모든 이가 이를 발견했으며, 이 카리즈마를 알게 된 모든 이가 이 발견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랑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재발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마리아: 감사합니다. 예수스의 느낌은 무엇인가요?

헤수스: 이 얘기 후에 내가 할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특히 이런 강한 경험 후에는! 이번 여름에 교황성하께서 크라쿠프에서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인류에 대한 성부의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신 한 사람,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온전히 끝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신 인간입니다. 난민, 감옥 수, 폭력... 이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성부의 선물은 부활입니다.

나는 이 사랑의 스토리가, 단지 이 스토리 만이, 오늘 날 하느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 스토리를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본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이 사랑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하느님께 호의를 베푸시다.

마리아: 고맙습니다. (박수)

## 10) 끼아라 루빅: 버림받은 예수님과 일치된 세계

라이언(Ryan): 제게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것은 영어로 “a drop in a bucket”, 바다에 물 한 방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엠마우스: 내 생각에 이에 대해서는 끼아라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끼아라가 “버림받은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한 젊은이에게 답을 주었는데, 끼아라도 그 분을 발견하는 모든 곳을 설명한 후, 조금 밖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대서양에 한 방울의 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해합니다. 네, 우리가 만난 몇몇 난민들을 도와주고, 우리와 관계를 갖게 된 소수의 감옥 수들을 도와 주긴 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끼아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특정한 것에, 하나의 거룩한 불씨를 놓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중재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특정한 것에 거룩한 불씨를 놓읍시다. 그 거룩한 불씨는 당연히 폭발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폭발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대서양에 물 한 방울 만이 아닙니다. 대서양에 물 한 방울 일수도 있겠지만, 대서양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통의 대서양을 조금씩 건조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냅시다! 하지만, 이제 끼아라가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말겁시다.

이 것은 공식적으로 한 모임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준 끼아라의 메시지입니다.

로피아노, 1987년 5월 16일 끼아라: 2젠 학교와의 만남

**남자 젠:** 끼아라가 내면에 무엇을 느끼는지, 지금 끼아라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어요.

**끼아라 :** 버림받은 예수님은 참으로 거대하고, 어느 모로 포콜라리노들과 젠들 삶의 비결이에요. 세상은 소비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주의, 주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웃음) 이것들을 이겨야 해요. 우리 안에도 물질에 대한 애착, 사람들, 가족, 조국, 공부에 대한 애착 등, 우리를 방해하는 것 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의 모든 ‘주의’로 인해 짓눌려 있기에 이것들을 이겨내야 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하느님의 왕국을 위한 자리를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만들기 위해 투쟁 해야 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느끼고, 다른 젠들에게 더 이상 미소를 지을 수 없음을 느끼나요? 이는 버림받은 예수님이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것을 느끼셨으니, 그 장벽을 끌어안으세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느끼는 즉시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바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요.

아니면 온통 두려움에 사로 잡히거나, 하고 싶은 마음, 의욕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의욕을 잃은 듯 했어요. 조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십자가 위에서도 당당하셨고,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살인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등, 예수로서 모든 것들을 하셨는데, 한 순간 실패한 자 같으셨고, 무기력하며, 연약한 자처럼 보였어요. 사실 시련은 끝없는 것이었고 아마도 지옥이 그분을 덮쳤을 것으로 이 때문에 그 분은 약해짐을 느끼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듯이 “왜?” “왜?”라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즉시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즉시 버림받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해요.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분을 모시며 젊은이들에게 부활하신 분을 전할 수 있고, 하느님 왕국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해요.

또 다른 이들 안에서도 버림받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고통 받기 때문이에요. 고아들을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어떤 이는 절망에 빠졌고, 다른 이는 배신 당했음을 느끼고, 실패했고, 이혼했으며, 고독하고,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이들의 고통을 없애주어야 해요. 다른 이들의 아픔이 바로 나의 것이에요. 그들 안의 버림받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해야 해요.

우리는 많은 장벽, 긴장감, 동서간의 전쟁, 남북간의 어려움, 세대간, 민족간의 어려움들을 보는데 이를 이겨내도록 일해야 할 것이에요.

버림받은 예수님을 시련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분열 안에서도 보아야 해요. 사람들은 “너희들은 광신자들이야, 세상이 일치되길 원한다고? 폭력주의가 난무하고 전쟁이 있고 이제는 우주 전쟁까지 논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원한다는 거니?” 라고 할 것이예요.

하지만 아니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하니, 이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자연보호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공공여론이 되었어요.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해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오염되기에 나도 자연보호에 대해 거론해요. 더 이상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없고 살기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처음에 누군가가 이 상처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다음 사람들이 뒤를 이었고, 그렇게 작은 활동이 되었어요. 누군가 동네를 청소하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체르노빌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이와 비슷한 일들을 전개하면서 서서히 자연보호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아메리카,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 모두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연보호 운동을 위한 녹색정당들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일치된 세계를 위해 투쟁하며 작은 활동들을 벌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불일치나 전쟁들 앞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공공 여론을 조성하게 돼요. 모두가 ‘이제는 핵무기가 있으니 뭉치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상황이므로 일치된 세계를 겨냥하는 것이 옳은 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까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예요. 포코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모두가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전에는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연보호 운동이 생겨나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일치된 세계의 이상도 사람들에게 스며 들어가 길을 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갈수록 이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투쟁할 것이며, 양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될 것이예요. 예를 들어 백인과 흑인,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대립 등은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것이예요. 새로운 사고방식, 공공 여론이 길을 만들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실 수 있을 것이예요. (박수)

## **11. 결론**

마리아: 이 끼아라의 말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라이언(Ryan): 우리가 소개 드린 프로젝트들에 관한 안내나 제안하고 싶은 스토리 등은 합동전화 사이트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ollegamentoCH)

마리아: 다음 약속은 2016년 11월 19일 저녁 8시입니다.

라이언(Ryan):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합동 전화 때 뵙겠습니다!

마리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박수)